**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

**<에베소서 2장 1-10절>**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한번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삶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주 잊혀져 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후에 하나님께 기억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가 거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거나 따르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5절과 8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σωζω(Sojo)는 어떤 인간적 상황으로부터의 구출, 치유,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단호히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역사의 분기점일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동안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녀왔습니다.

1942-45년 사이에 약 130만 명의 사람이 독일 나찌에 의해 그곳에 수감되어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90%에 달하는 약 110만 명이 유대인이었고, 체코와 모라바 지역에서도 4만6천 명의 사람이 거기로 끌려갔습니다.

하루에 약 5천 명씩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의 90%가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곳 전시관에서 저는 희생자들의 머리카락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들을 보았고, 가지고 들어왔던 생필품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힘 있는 젊은 남자들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쓸모 없는 아이나 여자들, 노인들은 더 빨리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처음에는 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을 더 빨리 더 경제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가스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가스실 건물들을 지어놓고 사이클론B라는 이름의 약품을 이용해 그들은 집단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후에 전쟁에 패색이 짙어진 독일군은 그곳에서 도망치며 가장 우선적으로 그 가스실들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려 했지만 그 잔해는 남았고, 그 때의 일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세기 이 문명의 시대에 어찌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이 비극의 최대 희생양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경제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나찌는 자금이 필요했고, 유대인들을 아리안 족의 적으로 몰아 착취함으로써 이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그 무고한 사람들에게 그처럼 엄청난 악을 자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두 사람만의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집단학살의 집행을 맡았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대전 후 중동을 전전하다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체포되어 결국 예루살렘의 특별법정에 세워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재판을 참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뉴요커 잡지에 연재합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혀 도착적이거나 가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에 뿔이 난 괴물이 아닌 평범한 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에겐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단지 상관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아렌트는 죄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된 본성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생각해야 할 때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그 무능함 속에서 악은 점점 무성하게 자라나고, 이러한 악은 우리들 가운데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악은 소리 없이 자라나 퍼져갑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악은 시나브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죄악의 진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3:10-12)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7:24)

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롬7:25)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3-24)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와 늘 교통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에게 휘둘리던 삶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던 삶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이 믿음은 은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고히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고히 붙들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미치기를 바랐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성찬잔이 모든 신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서 그 구원의 은혜가 온전한 믿음과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부패한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위한 사역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1415년 죽음을 앞두고 체코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얀 후스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나는 곧 있을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진리로부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후스가 죽은 후 그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모라바 지역에 형제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카톨릭 합스부르크 제국 하에서 신앙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위해 그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 남아 산속을 전전하며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720년부터 모라바 지역 수흐돌 나드 오드로우 지역 형제단들은 결국 신앙의 자유를 위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붙들고 떠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350킬로미터를 이동하여 결국 그들은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에 정착해 그곳의 다른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신앙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후 그것은 선교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수흐돌 지역에서 헤른후트로 이주해간 200여명의 사람들 가운데 무려 61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다시 길을 떠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고난의 여정을 택하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어서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허락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붙들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죽은 후 독일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 돈을 모으고 우둔한 백성은 면죄부를 사서 죄 문제를 돈으로 손쉽게 해결하려 하는 당대 현실을 마틴 루터는 가만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성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1517년의 이 일은 이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져갔습니다.

그는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보다 많은 반대자들과 또한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1620년 보름스 제국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루터는 엄청난 심적 부담과 고통을 느낍니다.

카톨릭 공의회의 결정으로 얀 후스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보름스 여정에 오릅니다.

그가 이제까지 했던 말과 썼던 글을 철회할 것을 공의회로부터 요구 받았을 때 루터는 하루의 말미를 청한 후 드디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양심에 반하여 움직이는 것은 결코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어떤 특별한 사람, 대단한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그분의 선하신 뜻을 확고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행동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과거 후스나 루터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명확히 드러나고 행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죄악된 현실의 일부분이 되거나 혹은 동조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이 세상의 죄악된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자유, 나아가 옳은 것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리 안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독일 뷔르템베르크 주교회를 방문했을 때, 핸드폰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핸드폰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 중에 0.004%의 소량을 차지하는 Tental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 텐탈은 콜탄이라는 원료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콜탄의 주 매장국이 아프리카의 콩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콩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전이 일어나고, 콩고 군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콜탄 채취에 강제 동원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의 하청업체들에서는 십대 아이들이 생산에 투입되어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거의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핸드폰에 대한 강의를 통해 알려주면서 독일교회들은 세상의 힘없고 고통 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삶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이고 불의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확고히 붙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의 행동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고히 붙들고 실천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베인 풀처럼 쇠잔해질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매일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고히 붙들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